

## 오무로류 꽃꽂이

닌나지 절은 일본 제 59 대 천황인 우다 천황(867~931 년)이 창시자인 오무로류 꽃꽂이의 거점입니다. 오무로류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약 70 년 전으로서 최근의 일이지만, 오무로류 꽃꽂이는 닌나지 절에서 수 세기에 걸쳐 실천되어 왔습니다. 일본의 중세(12 세기 말~16 세기 말) 시대에는 유명한 꽃꽂이 예술가의 대부분이 닌나지 절과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닌나지 절의 꽃꽂이는 전통을 좀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꽃을 꽃을 때는 식물이 자연에 존재하는 모습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 어느 꽃을 어느 각도로 놓을 것인가를 정한 ‘전통적’인 양식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닌나지 절의 전통 내에도 많은 종류가 존재하여 전통적인 관습에서 이탈해 자신의 취향에 따라 꽃을 꽃는 것도 허락됩니다. 이러한 유연성이 오무로류가 오늘날에도 계속 번영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